

고부갈등, 내 탓 아니다

‘애처가’와 ‘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성들

가족구조의 대세가 핵가족으로 흐르고 있는 요즘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마주 부딪칠 기회조차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또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권력 균형이 이미 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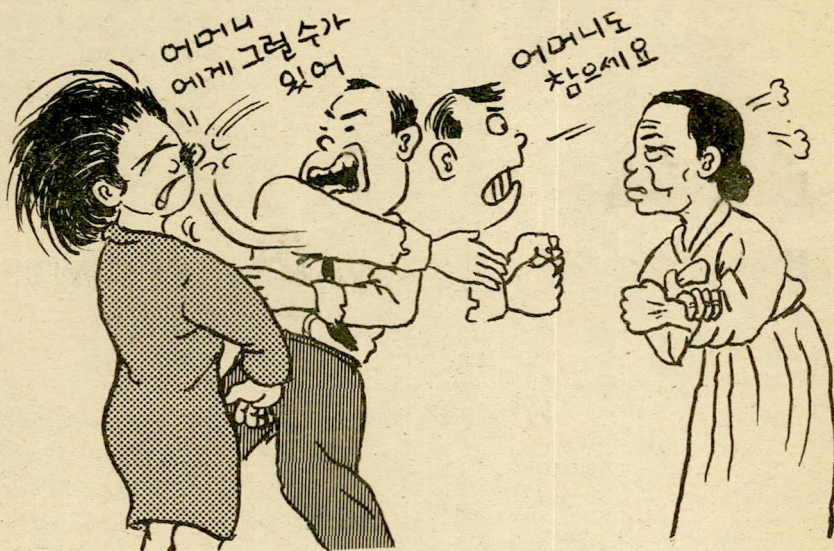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효심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미덕의 하나로 남아 있다. 평생 아들을 믿고 살아온 어머니는 효자 아들을 원하며 아들 효도를 참한 며느리와 공양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

현대 남성들이 시어머니 잘 모시는 후덕한 여자들만 만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마는 요즘의 여자들은 효자이전에 가정적인 남자, ‘애처가’를 원하고 있는 데서 문제는 생겨난다.

효자를 원하는 어머니와, 애처가를 원

없이 신혼의 아파트를 찾아오는 데서 시작됐다. 밤 12시도, 새벽 4시도 상관없

어나는 갈등이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왜 서로 만나게 되었는가? 결혼이란 제



고부갈등 발화점은 남성 자신 성숙한 공존관계 속에 해답이 있다

하는 아내 사이에서 현대 남성의 입지는 난처하기 짝이 없다. 효자 노릇 하자면 아내가 울고 애처가가 되려면 어머니가 울쩍해 진다. 그 뿐인가? 툭 하면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속을 끓이기가 일쑤이다. 평화로운 고부 관계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고부갈등은 ‘여성 심리 최대의 불가사의’라고 했던가?

잠실 주공아파트에 사는 L 씨는 효자와 애처가 노릇을 동시에 하고 싶은 평범한 현대 남성이다. 갓은 고생 끝에 자신을 키워준 홀어머니의 노고를 잊지 못하는 L 씨는 분가해 살면서도 늘 어머니 생각을 한다. 아내가 차린 아침상에 오른 고기국만 봐도 가난에 찌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고인다. L 씨는 애처가이기도 해서 밤이면 아내와 함께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얘기꽃을 피우는 낭만적인 결혼생활을 즐기며 산다. 문제는 아들이 분가한 것을 실감 못하는 L 씨의 어머니가 시도 때도

고 찾아오고 고기 반찬을 대접해드리면 ‘너희만 잘 먹고 산다’는 식으로 섭섭해하고 노여워 했다. 어머니의 문제를 잘 아는 L 씨이지만 어머니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L 씨는 늘 아내에게 참으라고 얘기해 왔다. 아내의 인내 보다는 어머니의 상처가 L 씨에게는 더욱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아내의 인내가 한계에 왔을 때 L 씨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크고 작은 고부갈등이 없는 집은 없다. 이럴 때 많은 남성들은 아내에게 참기를 요구하며 모든 갈등이 거기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갈등이 깊어지고 커져갈 때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남성들, 이 때 그들은 ‘여성심리의 불가사의’를 찾는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이 의문의 상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는 ‘불가사의’, 고부갈등은 진정 불가사의인가.

고부갈등은 분명 여자와 여자간에 일

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고부갈등의 발화점은 남성자신의 존재에 있다.

그렇기에 고부갈등은 남성들이 수수방관해도 좋은 불가사의가 아니다. 남성 자신의 내면을 거울로 비춰보자. 거기에 ‘엄마’ 품에서 독립하지 못한 모성 콤플렉스와 아내를 삶의 동료로, 독립된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고약한 권위주의가 보인다면 바로 그것이 고부갈등의 시작인 것이다.

효자와 애처가의 기로에 서서 갈등하는 현대의 남성들이여, 고부갈등은 어느 한편을 버리고 어느 한편을 선택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무관심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남자로 ‘길러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엄마’에게서 독립된 성숙한 성인으로, 아내와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공존의 지혜를 찾기 시작할 때 고부갈등의 불가사의는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본지 남성연구 모임)